



전북도, 반도체 공급망 중심 도약

지난 18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반도체 소재·케미컬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선정 기자회견에서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지자체장, 전북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전북, 반도체 공급망 연결고리”

이원택 지사 “주도적 역할 하겠다”

전북도가 반도체 핵심 소재·케미컬을 필두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과 남부권에 흩어진 반도체 생산기지 사이에서, 전북이 이들을 잇는 공급망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원택 도지사는 지난 1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제3기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 공모에서 새만금 국가산단, 익산 제3산단·국가산단, 완주 일반산단을 아우르는 ‘반도체 소재·케미컬 소부장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하나의 완제품이 되기까지 수백 개 공정을 거치며,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소재가 하나만 끊겨도 생산라인 전체가 멈출 수 있어 업계에서는 ‘병목 산업’으로 불린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팹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지만, 그 기반이 되는 소재·케미컬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흡해 수출 규제 등 대외 변수에 사실상 흔들리기 쉬운 구조.

전북-수도권-남부권을 잇는 이 초광역 협력 모델이 완성되면, 대한민국은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반도체 밸류체인을 자국 내에서 완결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대외 리스크를 낮추는 안전판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은 이미 오랜 기간 초고순도 반도체 소재·케미컬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가동되고 있었다”고 전제한 뒤 “수도권과 서남권 팹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북이 소부장 공급 거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장정철 기자

李대통령 지지율 37%…부정평가 56%

4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 경신

부동산·인사 부정평가 주요 원인

전남광주·전북 긍정61% 최고

장동혁도 부정61%로 역전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경총 뒤편서 56%로 오르는 등 호남을 제외하도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크게 넘는 부정평가가 나왔다.

이와함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

도 반 장동혁 정세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5~17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37%만 반면 부정평가는 5%포인트가 오른 56%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주 연속 하락했으며 취임 이후 최저치 경신이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별로 부정평가는 전남광주와 전북에서 31%로 가장 낮았다. 가장 부정평가가 높은 지역은 대구경북 69%, 서울 64%, 부울경 61%, 대전세종충청 58%, 인천경기 53% 순으로 높았다.

중도층(긍정 38%·부정 56%), 지지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25%·57%)에서도 부정론이 우세했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560명, 자유 응답)는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20%), ‘인사(人事)’(16%), ‘경제/민생’(9%), ‘검찰 권한 축소’,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5%),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국방/안보’(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갤럽]은 “부동산 문제가 7월 넷째 주부터 계속해서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를 차지하며, 장관 인선 후로는 인사 문제가 차상위에 자리한다”고 지적

했다.

취임 한달을 맞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 역할을 잘 수행하는 대해서는 30%가 긍정, 48%가 부정 평가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긍정평가가 54%, 부정평가가 27%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21%가 긍정, 61%가 부정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9.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반도체 소재·케미컬 소부장 특화단지 최종 선정

군산·익산·완주 3개 시군 연계

5년간 정부 지원 450억원 추진

약 8,300억 규모 민간투자 예정

군산시가 반도체 초고순도 화학소재 산업의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했다.

군산시는 지난 17일 산업통상부가 개최한 ‘제1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전북(군산·익산·완주)이 ‘제3기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화학소재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전국 11개 시·도가 제출한 16개 특화단지 육성계획서를 대상으로 한 치열한 경쟁 끝에 4개 특화단지 중 하나로 선정된 값진 성과다. 특히, 군산은 PKC, OCI를 앵커기업으로 앞세워 반도체 공정용 초고순도 화학소재 생산 기반과 기업 집적도, 산업 인프라, 공급망 안정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전북 반도체 소재 케미컬 소부장 특화단지는 군산·익산을 중심으로 세정·식각·증착 등 반도체 핵심 공정에 필요한 초고순도 케미컬 소재의 기술 고도화와 생산 역량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군산은 첨단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소재 공급기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향후 5년간 45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도 추진된다. 주요 지원은 ▲핵심기술 연구개발(R&D) ▲공동 활용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양성 ▲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 ▲인허가·규제 개선 지원 ▲정책금융 연계 등이다.

또한 전북 반도체 특화단지에는 약 8,3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예정돼 있어, 군산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기업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군산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PKC, OCI 등 지역 앵커기업과 함께 반도체 초고순도 소재 및 케미컬 공급망 안정화에 적극 기여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든든한 후방기지로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이번 성과는 PKC, OCI 등 군산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적해 온 기술력과 생산역량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해 군산이 반도체 초고순도 화학소재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김민석 “추미애 ‘21억 컨설팅’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계약가격·내용·투명성 살필 것”

“공적 책임 있는 문제” 강조

秋 “상식적 선거비용 집행” 반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친문성향 박시영 씨의 정치 컨설팅업체에 약 21억원을 지출했다는 보도와 관련,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민터07’에 출



김민석 대표



추미애 지사

연해 이같이 말하며 “(선거비용이)국민 세금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계약된 가격의 적정성은 당도 공적 책임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계약이 큰 액수라

는 것만으로 문제 삼을 수 없지만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그냥 덮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당과 당 후보자들의 계약들이 가격 내용, 투명성에 있어 적정한지 책임감을 갖고 문제가 제기되면 좀 더 깊이 들여다 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대표는 전날 “일부 여론조사·컨설팅 업체의 부도덕 상행위 여부를 살피고 있다”며 “여론조사나 컨설팅 카르텔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하드>는 “추미애 후보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와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보면,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추 지사(선거사무소)가 쓴 돈은 총 55억6천367만 원 중 37.63%인 20억 9천371만 원이 정치컨설팅 업체인 ㈜박시영으로 지출됐다”며 “(㈜박시영은 유세차와 LED전광판, 현수막, 컨설팅, 여론조사를 모두 맡아 총 33건을 추 지사 캠프와 거래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박시영은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박시영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 진단능력 ‘적합’

전국 71개 기관 대상 평가
7개 검사항목 모두 기준 충족
질병 진단 정확도·신뢰성 입증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 ‘2026년 전국 가축질병진단능력 정도관리 평가’에서 7개 검사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 18일 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가축질병 진단기관의 검사 정확성과 신

뢰성을 확보하고 진단기술 향상 및 검사법 표준화를 위해 매년 실시된다. 올해는 전국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수의과대학, 민간 검사기관 등 총 71개 기관이 참여했다. 평가항목은 ▲브루셀라병 형광편광분석법(FPA) ▲브루셀라병 간접효소면역측정법(I-ELISA)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유행성설사(PED) ▲뉴캐슬병(HI) ▲가금티푸스 ▲병리진단 등 총 7개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모든 항목에서

평가기준을 충족하며 가축질병 진단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했다. 전국 평가 결과, 검사 항목별 적합률은 98.9%로 지난해 98.4%보다 0.5%p 상승했으며, 전체 검사 정확도 역시 98.7%에서 99.0%로 0.3%p 높아졌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전 항목 적합 판정은 질병진단 담당자들의 꾸준한 기술 숙련과 진단 정확도 향상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검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축질병을 신속하고 정확



하게 진단하고, 도내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과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9월 소통의 날’…청렴 가치 되새겨

직원 900여명 도정 현안 공유
이지사 “도민주권정부 신뢰 중요”
이해충돌방지·갑질 등 사례 교육

전북도는 지난 18일 도청 공원장에서 직원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소통의 날’을 열고 도정 현안을 공유하며 공직자로서 청렴의 가치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는 이원택 도지사의 직원 소통메시지를 시작으로 2026년 3분기 혁신도정상 시상과 청렴라이브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민선9기 석 달째, 전북은 ‘도민이 주인인 도정’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간부회의의 생중계와 열린 도지사실 운영 등 도정의 문을 열어 도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도민과

함께 제감성장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민주권정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그 출발점이 바로 공직자의 청렴”이라며 “우리가 행하는 권한과 집행하는 예산은 모두 도민이 맡긴 것인 만큼 작은 특혜도 경계하고 적은 예산도 소중하게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어진 청렴라이브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기관 대상 청렴교육 과정으로, 직원들이 청렴의 의미를 쉽고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부정부패 타파를 주제로 한 태권도 공연을 시작으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 록 전문가사인 이선형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과 갑질,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사진=전북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어 청렴 상식을 주제로 한 미니 골든벨을 통해 관련 제도를 자연스럽게 되짚는 시간도 가졌다. 앞으로도 매월 ‘소통의 날’을 통해 주

요 도정 현안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강연을 통해 직원 역량과 조직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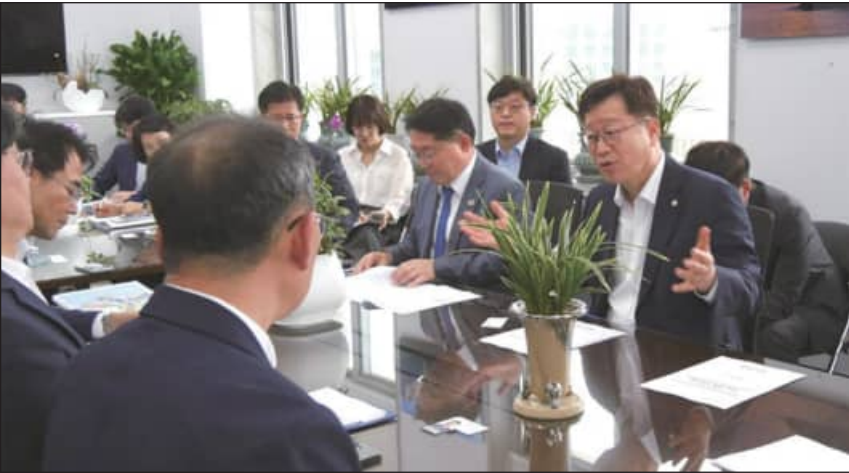
/장정철 기자

안호영, 현대차 새만금 투자·전북 성장사업 점검

국무조정실·산업부·새만금청 회의
로봇·수소·재생에너지 추진 점검
완주 특화단지 절차 조속 추진 요청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전북분과 책임의원인 안호영 의원은 국회에서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새만금개발청·전북특별자치도와 회의를 열고,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와 전북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난 17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김의겸 위원과 박희승·박지원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남영우 새만금개발청 차장이, 전북도에서는 현대자동차투자지원단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전북분과는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와 연계한 로봇·수소·재생에너지 산

업 기반 조성사업과 주요 특화단지 공모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사업별 쟁점과 정부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과 메가특구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북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전북은 군산·익산·완주를 연계한 소재·계미컬 중심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테스트베드와 인력양성, 지역특화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분과는 이번 지정이 전북의 피지컬 AI·미래자동차·첨단로봇 산업을 연결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전북분과는 정부에 ▲새만금 로봇부품 협력기업을 위한 상생형 임대공장 조성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지정 및



<사진=안호영의원실>

송·배전망 이용요금 감면 ▲새만금 수전해 플랜트와 수요처를 연결하는 수소 배관망의 국가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아울러 현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완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완주 수소상용모빌리티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절차를 서둘러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

다. 박희승 의원은 김용수 국무2차장에게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기초교육부터 임상교육과 수련까지 지역에서 이뤄지는 ‘지역완결형’으로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의료공공기관을 남원으로 이전해 공공의료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도, ‘독감 유행주의보’에 오늘부터 무료접종

어린이·임신부 21일부터 접종
65세 이상 10월부터 순차 진행

전북도는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이달 21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를 시작으로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 1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생후 6개월 이상 14세 이하 어린이(2012.1.1.~2026.8.31. 출생자),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61.12.31.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어린이와 임신부는 2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접종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연령별로 나눠 ▲75세 이상 10월 6일 ▲70~74세 10월 12일 ▲65~69세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한다. 접종은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독감으로 인한 중증화 위험과 질병 부담을 낮추는 효과적 방법”이라며 “도민들께서는 접종 일정에 맞춰 자녀와 부모님 등 가족의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챙겨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문할 것을 권장했다. 접종기관 방문 시에는 대상자 확인을 위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임신부는 산모수첩 등을 통해 접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예방접종과 함께 손씻기와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독감으로 인한 중증화 위험과 질병 부담을 낮추는 효과적 방법”이라며 “도민들께서는 접종 일정에 맞춰 자녀와 부모님 등 가족의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챙겨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다짐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개최
유공자 표창·관리 체험 운영

전북도는 제19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지난 18일 전주 KBS 잔디광장에서 도민과 치매 유관기관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9월 21일인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치매 예방과 환자·가족 지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전북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치매 예방과 극복에 기

여한 유공자들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치매 극복을 응원하는 음악공연을 진행했다. 행사는 치매상담존과 치유프로그램존, 스마트볼존, 신체튼튼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장도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치매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 김정 전북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행사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함께 응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안 전북분과 책임의원은 “국무조정실과 산업부, 새만금청, 전북도가 한자리에 모여 전북의 주요 성장사업을 점검하고 후속 과제를 협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실질적인 기업 투자와 산업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를 뒷받침할 로봇·수소·재생에너지 기반을 적기에 구축하고, 완주 노후거점산업단과 수소상용모빌리티 특화단지 등 후속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 ‘모두의 창업’ 비수도권 1위

1차보다 206% ↑ 지역기관 협업 성과 실제 창업·사업화 관련

전북지역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 도전 열기가 뜨겁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기술분야 2차 모집에서 전북지역 신청이 6,748건을 기록하며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이번 2차 모집 일반·기술분

야에는 전국에서 8만1천여 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전북은 6,748건으로 전체의 약 8.4%를 차지하며 비수도권 1위에 올랐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국민이 가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사업모델로 발전시켜 실제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참여형 창업 프로그램이다. 전북은 1차 모집에서도 호남권 최대 신청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2차 모집에서 참여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1차 2,206건에서 2차 6,748건으로 4,542건 늘어 증가율은 약 206%에 달했다. 높은 참여율에는 전북창조경제혁신

센터를 중심으로 전북대와 전주대, 군산대, 원광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캠퍼스창업기술원 등 10개 운영기관이 참여자 발굴과 홍보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지역 내 창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협력했다. 전북도는 1차 모집에 이어 도전자들의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북 ON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끝장캠프와 승전축하금 등을 통해 참여자들의 성장 역량을 높이고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창업 아이템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6,748건은 실제 창업기업

수가 아닌 프로젝트 신청 건수인 만큼 높은 참여 열기를 실질적인 창업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아이디어 발굴에 그치지 않고 사업모델 구체화와 사업화, 투자유치, 시장 진입을 거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상만 전북중기청장은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전북지역 창업인재들의 높은 관심과 허브·운영기관, 전북도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며 “지역 곳곳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져 창업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농진청, 치유농업 ‘체험’ 넘어 산업으로 키운다

보건·의료·복지·관광 교육 등 연계 ‘새 소득’

농촌진흥청이 농촌체험과 복지서비스 중심으로 성장해 온 치유농업을 보건·의료·관광·교육 등과 연계한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한다. 제도와 기반 구축 단계를 넘어 농업인과 전문인력,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시장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8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생명과학관에서 학계와 연구기관, 치유농업 현장 및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유농업 산업

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재 마련 중인 ‘제2차 치유농업 종합계획 수립 현황’과 ‘치유농업 산업화 방안’을 공유하고 산업화 정책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산업화 방안의 타당성을 비롯해 정책과 제의 실효성과 보완사항 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농진청은 그동안 관련 법령 제정과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치유농업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을 구축해 왔다. 앞으로는 이를 토대로 치유농업을 국민의 일상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다른 산업과의 융

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단계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길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와 복지, 관광, 교육, 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치유농업을 연계해 서비스 영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활동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복지·교육 프로그램과 관광상품 등으로 확장할 경우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생산·판매를 넘어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고 관련 전문인력과 산업계에도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치유농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효과

와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와 전문인력 육성,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모델 마련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사업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기관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노형일 농진청 농촌지원국장은 “이제는 제도적 기반을 넘어 치유농업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정책 집행 단계의 세부 실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 수출 19.8% 증가… 독일 3위 수출국 부상

8개월 연속 증가세… 알루미늄 등 수출 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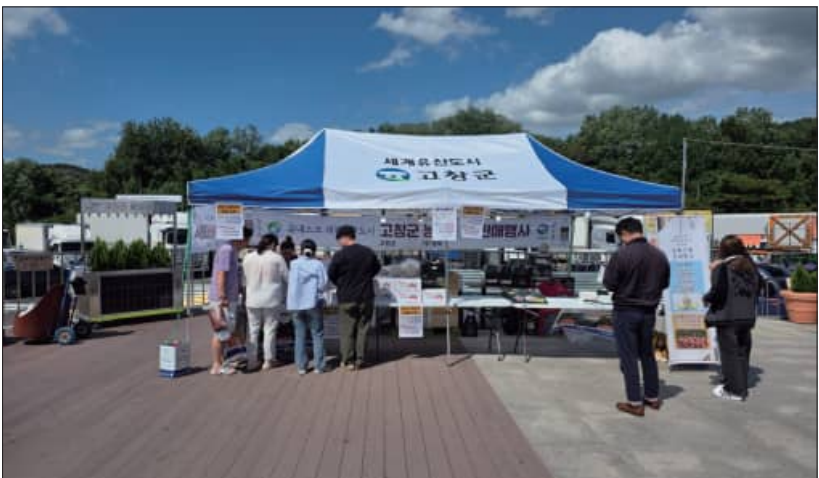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2026년 8월 전북특별자치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8월 전북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9.8% 증가한 5억 8,900만 달러로 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수입은 7.9% 증가한 4억 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1억 2,4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 대비 흑자 폭이 두 배 이상 확대됐다. 같은 달 전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8.7% 증가한 982억 8,200만 달러, 수입은 22.4% 증가한 634억 9,700만 달러

를 기록했다. 전북 수출은 전국 수출의 0.6%를 차지하며, 16개 시도 중 수출액 기준 12위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율 기준으로는 7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전북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세를 기록한 가운데, 독일 수출이 3,579만 달러로 353.2% 급증했다. 백금계 재활용 원료와 회귀금속·특수합금 원료의 수출 강세가 전체 독일 수출 성장을 견인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2011년 6월 이후 약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북의 3위 수출국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상위 품목에 대한 수출 집중도도 완화됐다. 상위 5대 품목인 기타정밀화학원

료, 알루미늄괴및스크랩, 농약, 합성수지, 기타금속광물 가운데 농약을 제외한 4개 품목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그러나 상위 5대 품목의 비중은 전년 동월보다 2.9%p 낮아진 28.4%를 기록해, 수출 품목의 다변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전북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농기계 수출은 부진했다. 자동차는 최대 수출시장인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38.4% 감소한 가운데, 승용차와 상용차 수출이 모두 줄었다. 농기계는 주요 시장인 미국으로의 경작기계 수출이 54.4%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또한 36.9% 줄었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국

수입 증가율 22.4% 보다는 낮았다. 주요 수입 품목은 농약, 사료, 동괴및스크랩, 기타정밀화학원료 등이었다. 상위 3개 수입국은 중국, 미국, 일본으로, 이들 국가가 전북 전체 수입액의 42.7%를 차지했다. 박강표 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전북 수출이 알루미늄·기타금속광물 등 자원 재활용 관련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다만 자동차·농기계 등 주력 품목의 부진과 미국 통상환경 변화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는 만큼, 품목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기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사진=고창군>

고창군, 오창휴게소서 농특산품 특별판매

고창군이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하남방향)에서 추석 귀성객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멜론과 꺾고구마를 선보이는 농특산품 특별판매 행사를 열었다. 오창휴게소 특판은 지난 18~20일, 오는 24~27일 2차례 진행된다. 고창의 대표적인 가을 농산물인 멜론과 고구마로 추석을 앞둔 소비자들의 수요를 적극 공략한다. 휴게소라는 특성상 별도의 판매처를 찾지 않아도 귀성·여행객에 고창 농산물을 접하고 구매할 수 있어 농특산품 홍보와 판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은 앞서 지난 1월 고속도로 휴

게소 운영 전문기업인 ㈜범화과 지역 농특산품 판로 확대와 지역 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설 명절 첫 번째 특별판매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고창군은 이번 두 번째 판매행사를 계기로 명절과 주요 농산물 출하시기를 연계한 판촉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통해 고창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소득 향상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환경정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사업단장 박승수)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지난 18일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전달 및 농촌마을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사업단 직원들은 군산시 서수면 소재 사회복지시설 성모양로원을 찾아 기부금을 전달하고, 시설 주변 제초 작업과 환경정비를 실시하며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이어 성모양로원 인근에 위치한 외무장 마을을 찾아 농식품부의 ‘아름

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집중 청소 기간에 발맞춰 마을 주변 생활쓰레기 수거와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한 일회성 봉사활동을 넘어 지역사회 나눔과 농촌환경 개선을 함께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직원들은 마을 곳곳을 직접 살피며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쾌적한 농촌경관 조성에 구슬땀을 흘렸다. 박승수 사업단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사진=전북농협>

2026년산 순창 동계 밤 중국 수출 선적식

전북농협-동계농협

중국 수출 기념… 12년 연속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과 동계농협(조합장 양준섭)은 지난 18일 오전 순창군 동계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2026년산 동계 밤”의 중국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가졌다. 이날 선적식에는 양준섭 동계농협 조합장, 최영일 순창군수, 오수환 순창군의회 의장, 장승필 전북자치도 의원, 신종철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장, 동계 밤 생산 농가 및 작목회 대표, 전북농협 실무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순창 동계 지역에서 생산되는 밤은 청정 산간 지대의 풍부한 일조량과 일교차 덕분에 알이 굵고 당도가 높으며 저장성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철저한 선별과 품질 관리를 거친 고품질 상품으로 매년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 동계농협이 중국으로 수출하

는 밤의 물량은 총 150여 톤 규모다. 이번 수출은 12년 연속으로 중국 수출길에 올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동계 밤이 농산물 수출 효자 품목으로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양준섭 동계농협 조합장은 “폭염과 이상기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품질 밤을 수확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12년 연속 수출이라는 쾌거를 발판 삼아 동계 밤 판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순창 동계 밤의 12년 연속 수출은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헌신과 농협의 체계적인 산지 유통 지원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전북농협은 우수한 전북 농산물이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堂堂히 경쟁할 수 있도록 수출국 다변화와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전주상의, 문화 복지로 지역 경제 활력 이끈다

임직원 사기 진작 ‘힐링 시네마’

이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지난 17일 롯데시네마 전주점에서 회원 기업 임직원 300여명을 초청해 영화 관람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회원기업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양질의 문화 복지 혜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기획됐다. 관람한 영화는 ‘암살자(들)’로 올 하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작품

이다. 행사에 참여한 회원기업 관계자는 “문화행사를 통해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되찾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지역 경제를 굳건히 떠받치고 있는 진정한 원동력은 다름 아닌 현장에서 땀 흘리는 회원기업 임직원 여러분”이라고 강조하며, “전주상공회의소는 경제 단체의 역할을 넘어 회원기업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지원사업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은행, 2026년 신입행원 채용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2026년 신입행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이번 채용은 개인·기업금융을 비롯해 외국환,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UB(Universal Banker)’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UB는 특정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무 역량을 갖춘 종합 금융인재를 의미한다. 전북은행은 신입행원들이 임행 후 영업점과 본부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금융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역시 전체 채용인원의 약 70%를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우수 인재를 적극 발굴해 금융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전형에서 지원자의 직무역량과 잠재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AI역량검사와 입사지원서 표절검사를 실시한다. 전형일정은 지난 18일 전북은행 채용 전용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 온라인 필기전형, 1차·2차 면접전형 등을 거쳐 11월 중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요강 및 안내는 전북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준호 기자

전북교육청·14개 시·군, 상생 협력 합동 워크숍

지역별 현안 진단 및 공동 의제 발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교육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도내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천호성 교육감

가운데 '2026년 교육청-지자체 교육협력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전북자치도 및 14개 시·군 교육협력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교육청-지자체 교육협력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기관 주도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을 지자체와 공동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타 시·도의 우수 교육협력 사례를 살펴본 뒤, 14개 시·군별 분임 토의를 통해 각 지역의 당면 현안을 점검하고 공동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도출된 협력 의제

를 바탕으로 지자체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협력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일섭 교육협력과장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양 기관의 정책적 접점을 지속해서 넓혀 상생하는 전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사진=김제시>

김제시, 국가유산 미래가치 창출 나선다

관아·향교 원형 회복 본격화
망해사 일원도 체계적 정비

김제시가 오는 2027년부터 김제 관아와 향교의 역사적 원형 회복과 진봉산 망해사 일원의 명승경관 정비

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국가유산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다. 시는 지난 8년간 국가유산 아열을 통해 김제 관아와 향교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과 방문객에게 널리 알려왔다. 이제 그동안 축적한 활용 성과를 토대로 국가유산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고, 김제 관아와 향교 일원을 조선시대 지방행정 문화유산의 전형을 온전히 살펴볼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 전초사업으로 2027년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된 진통 관아 내아인 '김제 내아'의 해체보수가 추진된다. 총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역사적 원형을 충실히 회복할 예정이다.

서부권에서는 국가유산 체제 전

환 이후 처음으로 지정된 국가명승인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의 체계적인 보존·정비가 시작된다.

시는 2027년 1단계 사업으로 진봉산과 망해사 일원의 탐방로 개선과 편의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서해의 낙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배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종교유산이 조화를 이루는 명승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신영호 문화관광과장은 "지난 8년간 김제 국가유산 아열이 관아와 향교의 가치를 알리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내아와 외삼문의 역사적 원형을 되찾아 조선시대 지방행정 공간의 완전한 모습을 시민에게 돌려드릴 때"라며 "국가유산의 보존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가치를 지역의 미래로 연결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가유산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양오봉 전북대 총장, 중국 길림대 80주년 참석

장희 총장과 회담서 화학 이공계 공동연구 합의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중국 길림대학교 개교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화학을 비롯한 이공계 분야 공동연구와 학술·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전북대에 따르면 양 총장은 15일부터 17일까지 중국 길림대를 방문해 장희(張希) 총장과 회담을 열고 양교 간 국제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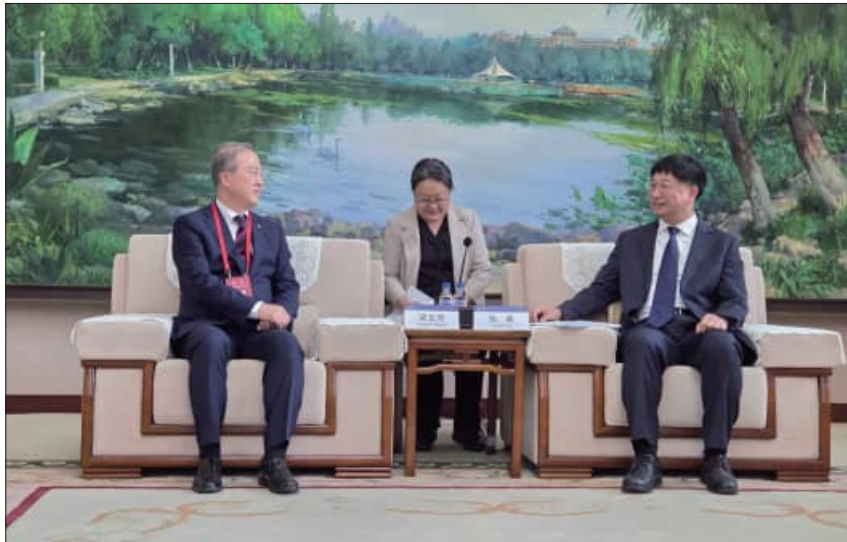
중국 교육부 직속 종합대학인 길림대는 재학생 7만5000여 명 규모로, 화학·물리학·재료과학 등 이공계열 연구 역

량을 갖춘 전북대의 주요 교류 대학이다. 화학 연구자 출신인 두 총장은 학문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공계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학생과 교원 파견 등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총장은 길림대에 80주년 축하패를 전달했으며, 내년 10월 열리는 전북대 개교 80주년 기념식에 장 총장을 공식 초청했다. 장 총장은 이에 화답해 전북대 답방 의사를 밝혔다.

양오봉 총장은 "길림대는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핵심 협력 대학"이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연구와 교육 전반의 협력을 공고히 다져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중국 길림대학 개교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화학을 비롯한 이공계 분야 공동연구와 학술·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전북대학교>

‘고창반평여행’ 가을 관광객 맞이 나선다

22일 오전 10시 하반기 참여자 산책순 모집

고창군이 여행경비의 최대 50%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고창반평여행'의 하반기 추가접수를 실시한다.

고창군은 22일 오전 10시부터 '고창반평여행' 하반기 참여자 37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접수에 따른 여행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25일까지다.

'고창반평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당일·경유형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 회차까지 총 3300여팀, 7500여명이 고창반평여행에 참여했으며, 참여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금액은

총 13억 529만여 원에 달했다. 관광객의 소비가 숙박, 음식점, 관광·체험, 특산물 구입 등 지역 곳곳으로 이어지면서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여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금액의 일부를 고창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함으로써 관광객의 추가 소비와 재방문을 유도하고, 관광으로 발생한 소비가 다시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관광소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참여 대상은 고창군과 인접 지역인 정읍·부안·장성·영광을 제외한 관외 거주 만 18세 이상 관광객으로, 고창반평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추가접수는 선선한 날씨와 함께 고창을 찾는 가을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추진된다. 군은 추가 모집을 통해 관광객의 숙박과



고창군이 '고창반평여행'의 하반기 추가접수를 실시한다.

<사진=고창군>

음식점, 관광·체험 등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환급받은 고창사랑상품권의 재소비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반평여행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에 힘입어 하반기

추가접수를 추진하게 됐다"며 "가을의 고창을 여행하며 다양한 관광자원을 즐기고, 여행경비 환급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전북교육청, 추석 연휴 주차장 739곳 무료 개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도민들의 주차 편의를 돕기 위해 도내 교육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전북교육청은 추석 연휴 기간 공·사립 학교 705개교와 전북교육청,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총 739개 시설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주차장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기관별 주차장 위치와 구체적인 개방 시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는 긴급 이동이나 비상 상황에 대비해 차량에 비상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야 하며, 시설물 훼손 방지와 교내 안전



<사진=전북교육청>

사고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홍공숙 재무과장은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한다"며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육시설인 만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한순 조지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위탁료를 부정 징집해 1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처분을 받은 기관은 10년간 수탁기관 선정에 참여할 수 없다. 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어 2023년 10월에는 감사담당관이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제2차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신분상 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이번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17일 해당 기간의 주요소 결제 내역 일체를 확보해 조과 결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은 한 점의 의혹 없이 규명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를 포함한 엄정하게 조치한다.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거래 방식은 제도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추석 앞두고 안전관리 총력 2(題)

남원시, 추석 연휴 산불방지 대응체계 강화

남원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성묘·별초 등 산림 인접 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해 산불 방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에서는 연휴기간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산림복지와 산림보호팀을 중심으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산림 재난대응단 산불전문진화대 4개조, 산불진화헬기 1대, 무인감시카메라 10개소를 운영해 산불 발생 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 강화 및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순창군, 추석 제수용 농산물 검사 ‘안전’

순창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에서 유통되는 제수용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모든 품목이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추석을 앞두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 단계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마트 및 코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쓰이는 사과, 배, 마늘, 부추 등 총 5품목 21종(채소류 12종, 과일류 6종, 서류 2종, 버섯류 1종)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463성분을

검사를 진행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21종에서 불검출 또는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허용 기준치 이내로 검출된 잔류농약은 검질 제거, 세척, 데치기 등의 일반적인 조리 과정을 거치면 대부분 제거되거나 분해된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063-650-5628)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발효미생물진흥원, 일동바이오와 MOU

건강기능식품 공동연구·사업화 순창 이진으로 산·연 협력 강화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지난 17일 진흥원 회의실에서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와 바이오 및 발효기술을 접목한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동연구와 기술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연구 인력과 기술, 인프라를 연계해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하고, 토착 발효미생물과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식품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발효미생물 및 기능성 소재 공동연구 △건강기능식품 소재 및 제품 개발 △연구·시험분석 및 생산 인프라 공동 활용 △기술 및 연구정보 교류 △개발 제품의 사업화 및 시장 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향후 순창 마이크로바이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예정으로 기업이 보유한 연구개발 기술력과 순창의 발효미생물 연구·생산 인프라가 결합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동연구에서 실증과 생산, 기술사업화까지 연계되는 산·연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진흥원이 보유한 발효미생물 연구 역량과 생산·시험분석 인프라에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건강기능식품 분야 전문기술을 접목해 연구성과의 산업화와 제품 상용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도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장은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순창 이전은 지역이 구축해 온 미생물 산업 인프라와 민간기업의 바이오 기술력이 결합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제32회 남원시민의 장 5명 선정…지역발전 공로

문화장 노경식 작가 등 5개 부문 10월 9일 흥부제서 시상

남원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남원의 명예를 드높인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제32회 남원시민의 장’ 수상자 5명을 최종 선정했다.

남원시민의 장은 각 분야에서 남원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남원 최고 영예의 상이다. 올해 시민의 장 수상자는 △문화장 노경식 △체육장 공강남 △봉사장 배경희 △산업노동장 양용우 △애향장 이형배 씨이다.

문화장 노경식씨는 극작가로 활동하며 ‘만인의 흥’이라는 작품 속에 고향인 남원의 역사와 정신을 담았다.

체육장 공강남씨는 남원시체육회 이사 및 남원시테니스협회 전무이사로 활동하며 남원시장배 전북 테니스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체육행사를 적극 추진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



문화장 노경식



체육장 공강남



봉사장 배경희



산업노동장 양용우



애향장 이형배

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남원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봉사장 배경희씨는 한국생활개선남원시연합회 및 대한적십자봉사회 남원지구협회 금지봉사회에서 활동하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1,3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실천해왔다. 특히 2015년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산업노동장 양용우씨는 스마트팜 도입과 신품종 생산 등 선진 농업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국산 품종인 ‘고을’ 모종을 해외로 수출하는 등 고품질 딸기 생산과 남원 명품 딸기 홍보에 힘써왔다. 또한 ‘한마음 딸기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작목반을 구성하고 신규 농업인 교육 및 지역 농업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애향장 이형배씨는 제13대 국회의원 재임 당시 농림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1991년 운봉을 화수리에 육계 저수지 유지를 위해 노력했으며,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 지역 농업인들이 저수지 입구에 공적비를 건립했다.

한편, 남원시는 10월 9일 흥부제 기간 중 ‘2026년 제32회 남원시민의 장’ 수여식에서 각 부문 수상자들에게 시민의 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지역·대학·산업 잇는 ‘교육혁신 비전’ 선포

지역 주도 교육혁신 협력망 구축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공모 연계

완주군이 지역의 교육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지역과 학교, 대학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완주형 교육혁신’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

지난 18일 완주군은 우석대학교 W-SKY23(본관 23층)에서 ‘모두가 빛나게, 완주가 새롭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혁신을 주제로 ‘완주군 교육혁신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선포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성중기 완주군의회 의장 및 의원, 완주교육장, 대학·산업 관계자,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위한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행사는 기념사와 축사에 이어 군수·교육장·학부모·학생 대표가 함께 비전 선포문을 낭독하고 이어 교육혁신선도지역의 비전과 추진전략, 대학·산업과 연계한 지역교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기획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기획발표에서는 ‘지역이 함께하는 완주교육’을 주제로 대학·산업과 연계한 교육방안을 제시하고, ‘포용으로 격차를 넘고, 도전으로 미래를 여는 완주교육’을 통해 지역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향을 공유했다.

군은 이번 비전 선포를 계기로 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 대학, 산업계,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주도 교육혁신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대학과 산업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과 연결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현재 완주군이 추진 중인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공모와도 맞닿아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역과 대학, 산업이 함께하는 완주형 교육혁신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사진=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관내 복지시설 6곳 명절 인사 생필품 등 위문품 전달

완주군의회(의장 성중기)가 지난 1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곳곳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살피고, 복지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의회 의원들은 △송진 노인복지센터 △소양 성요셉동산 △구이 노인복지센터 △이서 노인복지센터 △삼례 은빛사랑요양원 △고산 국제재활원 등 6개 시설을 차례로 방문했다.

의원원들은 각 시설에 필요한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입소자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한편, 시설 운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살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이용자들의 일상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성중기 의장은 “완주군의회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수소에너지지고-KCC, 지역인재 채용 ‘맞손’

산학 맞춤형 교육·장학금 지원 학교 추천·기업 선발 체계 구축

완주군이 지역인재의 취업과 정주를 위한 학교-기업 간 산학협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7일 완주군은 수소에너지지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2027학년도 입학설명회’에서 완주군-수소에너지고-KCC 채용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인재 육성에 나섰다.

이날 설명회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KCC 관계자 등 지역사회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완주군민과 예비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취업 프로그램, 기업 채용 현황 및 진로 정보를 소개했다.

협약에 따라 완주군과 KCC, 수소에너지고는 학교장 추천을 통한 채용·취업 후 정식 채용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체계를 가동한다.

학교가 기업 직무에 알맞은 학생을 추천하면 KCC는 자체 전형을 거쳐 학 중 맞춤 교육과 장학금 혜택을 받고, 졸업 시 기준을 충족하면 채용으로 연결된다.

군은 이번 협약이 한솔케미칼에 이어 KCC까지 대상을 넓힌 지역 정주형 산학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자체가 가교 역할을 맡아 학교는 기업 수요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은 검증된 지역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상생 구조를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송현진 수소에너지고 교장은 “학생들의 교육이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AI 미래행정’ 특강…공무원 200여명 참여

순창군은 지난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시대의 변화와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200여명의 공무원들이 참석해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특강은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AI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바라보는 관점과 미래 행정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은 ‘순창군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연에서는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은퇴 준비 중장년층 ‘미래설계 및 은퇴자 교육’ 진행

남원시는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미래설계 및 은퇴자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28일부터 수강생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퇴직 후 변화된 삶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중장년층이 은퇴 이후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오후 7시 남원시평생학습관에서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중장년층의 생활할 수요를 반영해 미래설계, 금융·경제, 건강관리, 재취업 등 은퇴 이후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경제적·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 대상은 45세부터 64세까지의 남원 시민이며, 신청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남원시 통합예약·신청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평생학습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시 교육체육과장은 “많은 이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하면서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한다”며 “이번 교육이 그 불안감을 지우고, 다채롭고 활기찬 미래를 그려나가는 알찬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시설관리공단 명절 연휴 비상근무체계 운영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이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 공단 운영시설을 이용하는 군민과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한다.

고산자연휴양림과 완주군공설공원묘지는 연휴 기간 가족 단위 이용객 및 성묘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 이용객의 안전관리와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근무자를 배치한다.

공영마을버스 또한 명절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군민들의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공단은 연휴 기간 시설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근무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희수 이사장은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비상 대응을 통해 명절 기간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치매극복의 날 맞이 도서 전시 등 응원 캠페인

순창군은 제19회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을 맞아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응원하기 위한 ‘기억을 읽다, 마음을 잇다’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지역주민들이 치매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치매 관련 도서 전시, 응원메시지 작성, 마음꾸러미 전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군립도서관에서는 치매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치매 관련 도서 전시를 진행했다. 전시에서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를 비롯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책을 소개했다.

또한 도서 전시와 연계해 주민들이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는 참여형 캠페인도 진행됐다. 주민들이 작성한 메시지와 치매 관련 도서를 함께 담은 ‘마음꾸러미’는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전달됐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등 지역주민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는 치매조기검진의 중요성과 치매예방수칙,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업을 알리는 현장 캠페인도 펼쳤다.

/순창=박지현 기자



한국서부발전(주) 군산발전본부
온누리상품권 500만원 기탁

군산시는 한국서부발전(주) 군산발전본부(본부장 최정욱)가 지난 18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온누리상품권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저소득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정욱 한국서부발전(주) 군산발전본부장은 “전달해 드리는 상품권이 추석 명절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 전통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국서부발전(주) 군산발전본부는 ‘미래를 여는 친환경·성장 에너지, 사람 중심의 신뢰·상생 에너지’라는 기업 미션 아래 친환경 LNG 복합발전소를 운영하며 지역 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진안 부귀면지사협
취약계층 30세대에 반찬 나눔

진안군 부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반찬 나눔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정성껏 준비한 배추김치와 계란 장조림을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30세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 제공된 계란 장조림의 계란은 늘푸른영농조합법인 김정학님이 후원해 지역사회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반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장과 전달까지 직접 참여했으며, 대상 가구를 찾아가 반찬을 전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정서적 지원에도 힘썼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골프리조트, 취약계층에 1004박스 기탁

추석맞이 온정 나눔

장수골프리조트(대표 이용규)가 지난 18일 추석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장수군에 1,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인 ‘1004박스’ 300개를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1004박스’는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사골곰탕 등 영양가 있는 식품과 세제, 샴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생필품으로 구성됐다.

장수골프리조트는 모기업인 ㈜인탑스의 주관으로 2021년부터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고 이웃사

랑을 실천하기 위한 ‘행복나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매년 ‘1004박스’를 기탁하는 것은 물론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용규 대표는 “장수군민들이 보내주는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꾸준히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더 많은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훈식 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도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이용규 대표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

한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성을 다해 전달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남원시가족센터, 몽골과의 인연 이어간다!

두번째 몽골 해외문화 봉사
한울안운동-전북은행 후원

남원시가족센터(센터장 나찬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단법인 한울안운동의 지원으로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몽골 날라흐 지역 제 103학교를 방문해 장학금과 교육 물품을 전달하고 한국문화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가족센터는 제103학교 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신입생

100명에게 문구 선물 세트를, 3학년 재학생들에게는 농구공·배구공·축구공 등 체육활동에 필요한 스포츠 용품을 전달하는 등 총 340만원 상당의 기금을 지원했다.

이번 활동에는 전북은행의 후원도 더해졌다.

후원금은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갓 만들기과 한복 체험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창군協, 성금 기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창군협의회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65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성금 기탁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협의회는 지역의 통일 기반 조성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펼

치며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이번 성금 기탁을 비롯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실천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영택 고창민주평통 회장은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를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금산면 어부바봉사단, 마을공동밥상 운영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어부바 주민자치봉사단과 함께 9월 마을공동밥상 행사의 일환으로 소불고기 도시락 나눔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마을공동밥상’은 매월 시기에 맞는 특색 있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직접 만들어 독거 어르신 등 양 취약계층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

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이번 달 역시 봉사단은 정성껏 준비한 소불고기 도시락 500개를 어르신들에 직접 전달하며 든든한 식사를 챙기고 꾸준히 안부를 확인하는 이웃사랑을 이어갔다.

정성이 가득 담긴 따뜻한 한 끼를 건네받은 어르신들은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봉사단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완주군 이엘농장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전달

완주군 소양면에서 30년간 가업을 이어온 양돈 전문 축산 농가 이엘농장(대표 김정기)이 지난 18일 완주군청을 찾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1994년 10월 문을 연 이엘농장은 현재 직원 7명과 함께 위생적인 사육 관리와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힘쓰고 있는 지역 향토 농가다.

소양면에서 나고 자란 김정기 대표가 고향 터전에서 일군 결실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는 점에서 나눔의 뜻을 더했다.

이엘농장은 평소에도 고향 사람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지난 5년간 해마다 2회씩 소양면 새마을부녀회 추석맞이 반찬 나눔 행사에 돼지불고기 100kg(150만 원 상당)을 후원하고, 500여 명의 어르신 식사 대접을 위해 불고기(200만 원 상당)를 지속해서 기탁하며 온정을 베풀어왔다.

/완주=김명곤 기자



익산 팔봉동, 추석 앞두고
따뜻한 나눔 이어져

익산시 팔봉동은 지난 18일 ‘팔봉환경사랑회(회장 이종선)’와 ‘사랑의동산교회(담임목사 류무열)’가 각각 쌀과 온누리상품권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팔봉환경사랑회는 지역 내 29개 마을 경로당 등에 쌀을 기탁했다. 이번 나눔은 추석을 맞아 지역 고령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같은 날 용제동에 있는 사랑의동산교회도 팔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온누리상품권 25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내 취약계층 40가구에 각 5만 원씩 전달되고, 나머지 50만 원은 팔봉동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예담과 푸른솔에 각 25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권수현 팔봉동장은 “추석을 앞두고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는 팔봉환경사랑회와 사랑의동산교회에 감사드립니다”며 “행정에서도 주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마음담백, 지구를 아껴요 과대 포장 NO!
진정한 가치는 포장이 아닌 정성입니다



불필요한 포장은 쓰레기만 남깁니다



간소한 포장으로 환경보호에 동참해 주세요

〈一事一言〉



민심의 경고 앞에 선 대통령, 이제 말이 아니라 변화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이 대통령, “소통과 배려 미흡” 자신의 부족함으로 돌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국정을 설명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민심을 직접 확인하는 무대다. 국정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 인사와 부동산,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18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책임은 외부로 돌리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자신의 부족함으로 돌리며 소통과 배려가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특히 최근 정책적 혼선을 빚었던 ‘레버리지 제도’ 도입 문제 등에 대해 자신의 오판과 집행과정에서의 불찰을 솔직히 인정하고 높이 평가받을 만한 책임 의식을 보였다. 국정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야당이나 언론, 관료, 이전 정부를 탓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거듭된 정책 추진 과정의 부작용을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겠다는 발언은 국정 책임자로서의 진정성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자인(自認)이 진정한 평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국정 기초의 근본적 변화’다.

같은 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7%, 부정평

가는 56%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의 핵심 원인으로서는 단연 부동산 및 민생 경제정책, 그리고 인사 문제가 꼽혔다. 민심이 무엇에 불만을 느끼는지 명확히 드러난 셈이다.

레버리지 도입과 같은 시장 파급력이 막대한 정책 이슈는 목적이 아무리 선했더라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시장 교란이 발생했다면 정부가 즉시 인정하고 정밀하게 보완해야 한다. 한번 발표한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의 권위가 아닌 오만이다. 오류를 인정했듯, 향후 레버리지 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 및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여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정교한 국정운영이 요구된다.

인사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인사는 대통령 국정철학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능력과 도덕성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야 한다. 대통령이 이날 인사 시스템 재검검 의사를 밝힌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사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연임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도 소모적 정치 공방을 정리하고 국정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로 평가할 만하다.

여기에 지방의 시각으로 한 가지를 더 보태야 한다.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과 국민통합은 수도권에만 머물러서는 완결될 수 없다.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

조직 병폐다.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청년 유출과 일자리 부족, 대학 및 의료 인프라의 붕괴로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

새만금 개발과 미래산업 육성,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전북의 굵직한 현안들도 ‘구호’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일정과 예산으로 담겨야 한다. 지역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국가균형발전은 중앙정부의 생색내기용 구호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끝났지만 국정은 계속된다. 때로는 국민에게 비인기 정책이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설득해 추진해야 하고, 잘못된 정책은 즉각 고쳐야 한다. 핵심은 국민의 신호를 정확히 읽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체계적인 국정 시스템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소통과 인사, 정책 운영을 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다. 레버리지 도입을 비롯한 주요 정책이 얼마나 신중하고 치밀하게 분석되어 보완되는지, 인사가 새로워지는지, 수도권과 지방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국정이 실현되는지 국민은 눈을 뜨고 지켜볼 것이다. 민심의 경고를 들었다면 답은 말이 아니라 정교하게 다듬어진 ‘국정의 변화’로 보여주어야 한다.

| 독자투고 |

안전이 더해질 때, 가을의 지평선은 더욱 아름답다



가을의 결실을 축하하는 계절이 찾아왔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김제지평선축제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활기찬 가을 축제와 다중운집 행사가 개최된다. 수많은 이들이 모여 즐거운 추억을 쌓는 공간이지만, 현장에서 제복을 입고 인파를 바라보는 경찰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안전’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다.

대규모 인파가 일시에 몰리는 축제 현장은 순식간에 예측하기 힘든 위험 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 밀집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끌려 다니다 인파 사고나 안전사고로 이

어질 위험이 커진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자체, 소방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현장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지역 순찰 강화, 비상 진출입로 확보, 교통 차로 가변 운용 등 다각도의 재난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완벽한 안전은 현장 통제관의 뒤편만은 아니다. 안전한 축제 현장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는 바로 현장을 찾은 방문객 여러분의 자발적인 질서 의식이다.

첫째, ‘우측통행과 서행’을 생활화해야 한다. 이동 시 앞사람과의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특히 개·폐막식이나 드론쇼, 불꽃놀이 등 인파가 한곳으로 쏠리는 시간대에는 절대 조급하게 이동해서는 안 된다.

둘째, ‘비상로 확보’에 협조해야 한다. 지

정되지 않은 장소에 돛자리를 펴거나 통로를 막는 행동은 유사시 비상 차량 접근과 신속한 대피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

셋째, 만약 현장에서 밀집도가 높아져 위험을 느낀다면 즉시 진행 방향의 측면 넓은 공간이나 비상구로 신속히 탈출해야 한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주저 없이 주변의 경찰관이나 현장 안전요원 또는 112로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눈에 띄지 않는 구석까지 살피고, 현장 안전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안전 수칙을 지키는 소소한 배려와 질서 의식이 모일 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을날의 추억은 비로소 안전하고 더 빛나게 될 것이다.

김제경찰서 경비안보과
순경 이강민

사설

편의점 ‘안심존’ 28곳, 생활안전망 더 촘촘히 넓혀야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편의점 28곳을 위급상황 때 시민들이 몸을 피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존’으로 지정하는 것은 생활밀착형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반길 일이다. 경찰서나 지구대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치안의 빈틈을 시민들의 일상 공간인 편의점을 활용해 보완하겠다는 발상이 돋보인다.

안심존은 범죄 위협이나 위급상황에 처한 시민이 지정 편의점으로 대피하면 종사자가 관계기관 신고를 돕고 매장을 임시 대피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매장에는 호신용 스프레이와 경보기 등 안심키트도 비치된다.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귀갓길 위협 등 긴박한 상황에서 가까운 곳에 몸을 피할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편의점은 주택가와 상업지역 곳곳에 자리하고 야간에도 문을 여는 곳이 많다. 이런 생활공간을 지역 안전거점으로 활용한다면 경찰력이 미처 닿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을 보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행정과 민간이 협력해 생활 속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도내 28곳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위급상황에서 안심존을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특정 편의점 브랜드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편의점 업체와 약국 등 접근성이 높은 생활시설까지 참여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시·군별 안심존 분포를 점검해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효성 확보도 관건이다. 안심존 표시를 붙이고 장비를 비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안 된다. 실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종사자가 어떻게 신고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지 명확한 대응 매뉴얼과 정기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연결되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

안전정책의 가치는 시설의 숫자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 실제 시민을 지켜낼 수 있는냐에 있다. 전북도가 이번 28곳 지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안심존을 도내 전역으로 촘촘히 확대하기 바란다. 시민이 위급할 때 가까운 곳 어디에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안심 전북’이라 할 수 있다.

▲오늘의시

이승에 단 램프 / 조병화

나의 목숨은 이승에 단 램프
아직은 어머니가 주신 기쁨이 남아
너를 볼 수가 있다
불빛이 밝은 만큼 뚜렷이
불빛이 강한 만큼 따뜻이
불빛이 피진 만큼 넓게
어둠을 헤치며
아직은 어머니가 주신 기쁨이 남아
멀리서나마, 이렇게 까마득히 멀리서나마
그냥 너를 저리도록 그리워할 수가 있다
간단없는 거센 바람 속에
영원처럼.

시인 약력 : 1921년 경기도 안성 출생, 1940년 경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 고등사범학교 물리 화학과를 졸업했다. 경성사범학교 서울교 교사에 이어 경희대 문과대 학장을 역임했다.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 대한민국 문학상, 금관 문화훈장 등을 받았다. 시집으로 ‘하루만 의 위안’ ‘인간고도’ ‘공존의 이유’ 등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2003년 향년 81세로 별세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인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8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8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 010-5242-38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새로운 도약, 전북과 함께 합니다 !

JBT 전북타임스

전북의 참 목소리, 정직한 언론

전북의 꿈과 희망 ! 전북타임스와 함께 하십시오!

홈페이지 : <https://www.jeonbuktimes.co.kr> 구독, 광고문의 : 063)282-9600~3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사업 조감도



심포배수지 신설건의(새만금개발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현장)방문

김제시, 탄소중립·미래 수도(水道) 인프라 구축 박차

지속 가능한 물 자원 선진화

김제시가 상수도 유수율 극대화와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통합바이오 가스화사업을 본격화하며 친환경 물 관리 선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의 고도화는 새만금 수질 개선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핵심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상하수도요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스마트 행정까지 구현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촘촘하고 선진화된 통합 물 관리 체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셀 틈 없는 수돗물, 유수율 93.3% 패거... 스마트 상수도 공급체계 선진화

시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상수도 공급체계의 안정성과 효율성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1차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동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417억 원을 투입해 노후 수도관 36.4km를 교체·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사업 완료 결과 지난 4월 기준 유수율이 93.3%까지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준공됐으며, 연간 약 166만4천㎡의 누수량을 저감하고 약 36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창출하는 등 상수도 운영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차 사업은

2025년부터 만경읍,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 죽산면, 청하면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국·도비를 확보해 총사업비 388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3차 사업은 국·도비 121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02억 원을 투입해 2031년까지 죽산면, 부량면, 금산면 일원의 노후 상수관 20.8km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2차 및 3차 사업이 완료되어 해당지역 목표 유수율 85%를 달성할 경우, 연간 약 112만4천㎡의 누수량을 추가로 줄이고 약 25억 원의 운영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김제시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것은 물론, 예산 절감과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실현해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같은 노후관망 정비 노력에 발맞춰,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수도행정 구현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까지 원격검침 수도미터는 1만 4천여 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2026년~2030년까지 스마트 수도미터 2만 3천여 개소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실시간 수도 사용량 확인과 누수 조기 발견, 검침 자동화가 가능해져 행정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이상 사용 패턴을 감지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시민 중심의 스마트 상수도 서비스도 함께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촌 생활환경 혁신, 촘촘한 마을하수도 보급

망 확충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수도 보급률이 낮았던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도 본격화된다. 김제시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5개 지구에서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마을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를 신설하여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를 통해 공공수역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악취와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핵심 기초 시설 사업이다.

하수도 보급률 제고는 민선9기 핵심사업으로, 하수도 보급 확대를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하수도 시설 확충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사업 추진의 핵심 과제다. 이에 김제시는 관계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국고보조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신규 하수도 정비사업의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여건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골칫거리 악취 해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사업 본격화

늘어나는 하수 유입에 대비하고 하수처리 과정의 과부하 및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총사업비 575억 원 규모의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사업(2027~2030년)'이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은 2023년 환경부 공모에서 전국 4개 지자체만 선정하여 국비 295억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늘어나는 하수 유입에 대비하고 하수처리 과정의 과부하 및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수슬러지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통합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7년 이후에는 본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 편의와 교육·체원을 위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보조적으로 조성해 지역 친환경 환경 시설로 거듭날 예정이다.

#새만금 개발의 든든한 뒷받침, 용수 공급망 구축과 수질 개선 '핵심 마중물'

시는 새만금 김제지역 상·하수도 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상수도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상·하수도 인프라 정비는 단순히 시민의 생활 편의 향상을 넘어, 새만금 지역 개발 및 수질 개선이라는 거시적 환경 생태계 복원과 직결된다.

시는 새만금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에도 나서고 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총 연장 6.6km의 상수도 관로를 설치하여 새만금수목원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등 주요 시설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기반을 구축했다.

나아가 장기적인 새만금 용수공급체계 마련하고, 재난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양방향 급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심포배수지 신설안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새만금개발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하수도 및 수질 개선 측면에서는 새만금개발공

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다. 특히 새만금 수변도시 내 하수처리시설(A구역) 반영 및 새만금 제2산단 발생하수의 만경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처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이를 현재 추진 중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에 차질 없이 담아낼 계획이다.

동시에,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과 농촌 하수도 보급 확대를 통해 하수슬러지와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 수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향후 새만금 개발 일정에 맞춰 인프라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스마트 행정과 합리적 요금 관리로 시민 편의·부담 최소화 실현

물 관리 인프라의 혁신과 더불어 대시민 행정 서비스 역시 진화했다. 시는 시민들의 요금 조회 및 납부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대면 '상하수도요금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 중이다. 종이 고지서 없이도 수용가관리번호만으로 실시간 조회와 즉시 납부, 자동이체 신청 등이 원스톱으로 가능해져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와 더불어 시는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부득이하게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 하되,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적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노후 관망 정비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전액 재투자되어, 고품질의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2026 14th

군산시시간여행축제

10.2.금 - 10.5.일

구·시청광장 및 시간여행마을 일원

Hello, Modern
군산시간여행 1930's

총예산 10.34억
(도비 0.5 지비 9.84)
담당부서 관광진흥과

항구로 들어온 근대,
골목에 남은 기억,
축제가 된 시간

ARCHIVE
1930
GUNSAN

주최·주관 | 군산시 후원 | 전북특별자치도 협찬 | 이성당

QR CODE

축제 홈페이지